2024 불교도 대법회

현대불교 특집

온 국민 행복 이르는 길 ‘선명상’ 대중화에 있다

혹자는 말한다. 지금의 한반도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유엔(UN)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하는 국가 행복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행복 지수는 ‘6.058’로 순위는 60개국 중 52위다.

그 뿐인가. 한국은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여기에 마약, 도박 등 각종 중독문제가 빠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이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롭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대중화에 나선 것은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스님이 말하는 선명상의 핵심은 ‘고통을 없애는 것’에 있다.

9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거대한 명상센터가 된다. 2024 불교도 대법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진우 스님의 진두지휘로 1년간 준비해 온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체 고락(苦樂)을 끊어 스스로를 행복에 이르는 길, 선명상 정진에 동참해보자. 첫 번째 실천이 될 ‘2024 불교도 대법회’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